

# 순창군, 도시민 안정적 정착 돕는다 ‘드론으로 피어나는 남원’ 탄력

이사정착비·주택 수리비·신축비·농촌 체험 지원 등 귀농귀촌 지원사업 추진

순창군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귀농귀촌인 현황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관리하고, 사업 혜택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문자 발송 등 개별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군은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덜고 농촌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이사정착비, 영농기반 조성비, 주택 수리와 신축비, 농촌 체험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군은 귀농귀촌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사정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의 귀농귀촌 세대로, 1인 세대 70만 원, 2~3인 세대 150만 원, 4

인 이상 세대 200만 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귀농 후 원활한 농업 활동을 위해 소득기반 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농업인으로 등록한 귀농인은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계, 저온저장고, 관정 등의 기자재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세대당 최대 1,000만 원(50% 보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귀농귀촌 생활의 기분이 되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수리비와 신축비도 지원된다.

노후 주택을 수리하거나 신축이 필요한 경우 세대당 최대 1,000만 원(70% 보조)까지 지원받아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귀농을 고려하는 도시민들이 사전에 농촌 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체험 지원 사업도 마련했다.

30명 이상의 단체가 순창군을 방문

해 농촌 체험을 할 경우, 1일 체험에는 50만 원, 1박 2일 체험에는 80만 원의 체험비(버스비 포함)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연중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은 순창군청 인구정책과 귀농귀촌팀(063-650-1593~5)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 및 신청하면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올해 초부터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도시민들이 귀농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순창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은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순창=이왕일 기자

시, 3년 연속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선정

남원시가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25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사업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배송, 레저스포츠, 행정서비스 등의 사업모델을 실증하고, 드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남원시의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시민이 체감하는 드론산업’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정책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활용 모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자 국내 우수 기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특히 민선식 부시장이 인연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열린 발표회에 직접 참석하여 남원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의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실증 세부 과제로는 △(주)아세파의 K-드론배송 표준안에 따른 남원형 드

론배송 체계 구축 △(주)다에프엘코퍼레이션의 드론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국제 드론레이싱 대회 개최로 항공안전기술원의 서류 및 발표평가 시 높은 관심을 받았다.

남원시는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드론 레저스포츠 분야를 주축으로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와 첨단 드론 스포츠 활성화 지원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이번 2025 남원 국제드론대전(10월 16일~10월 19일(4일간))으로 국내 드론산업의 선도주자로서 첨단 미래축제의 위상을 확고히 할 계획이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그동안 남원시의 드론산업 기반을 구축하였다면 올 한 해는 저변 확대를 위한 중요한 시기라며, 일상생활 속 드론 서비스 활성화, 지속 가능한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 등 드론으로 피어나는 남원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 등

### 남원시, 행복미소 치아지원 사업 추진

남원시는 3월부터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임플란트 및 틀니 시술비를 최대 270만원까지(시 90% 지원, 자부담 10%) 지원하는 행복미소 치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은 틀니 및 임플란트 의료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반면, 65세 미만자에 대한 공적 지원은 없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치아 시술이 필요함에도 시술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추진하게 되었다.

시술을, 남원시 치과의사협회와 업무 협약으로 관내 15개 소 치과에서받을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오는 2월 14일까지 모집공고를 통해 시술항목, 연령, 장애유무, 한부모 유무 등 객관적 선발기준에 의해 지원대상자를 선발, 약 1억원의 예산으로 49명에게 시술을 시행한다.

허인선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더욱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복지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개별공시지가 검증 18일까지 실시

임실군이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검증을 이달 18일까지 실시한다.

군은 검증을 위해 15만8,148필지의 토지 특성 등을 조사하여 지가산정 작업을 완료했다.

이 중 선정된 10만2,221필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4명의 감정평가사가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와의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증을 실시하게 된다.

검증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는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특성 등의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전홍영 기자

## 기업 경쟁력 강화·고용 개선 기대

임실군,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 기업지원사업’ 공모 선정

임실군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팔을 걷어붙였다.

특히 군은 도비 확보와 군비 투입을 통해 관내 기업의 매출 증대와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 고용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5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시군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이 지역의 고용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제

안 및 추진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군은 ‘임실군 지역특화 기업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 도비 9천 만원을 확보했으며, 추가로 군비를 확보해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군의 주요 산업인 농식품 판매 및 가공업, 치즈·유제품, 발효식품 기업들에 활성화와 지원 사업과 교육지원 사업으로 운영된다.

활성화 지원 사업은 기업의 성장과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 홍보 지원 및 시제품 제작 등 기업 수요 맞춤형 아이템을 발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교육지원 사업은 기업 수요에 맞춘 기업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기업 협력망 구축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군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지역 내 신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환경 변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실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팀(063-640-245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심 민 군수는 “지역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맞춤형 지원을 받아 탄실한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 지원을 통해 기업에 활력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전홍영 기자



전주시 아동복지과 직원들은 지난 4일 남원시를 방문해 아동보호구역 운영 방안을 살펴봤으며, 현장을 점검하고 아동 안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 전주시 아동복지과, 남원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벤치마킹

남원시가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를 제정해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과 실행 시책이 타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일, 전주시 아동복지과 직원들은 시를 방문해 아동보호구역 운영 방안을 살펴봤으며, 현장을 점검하고 아동 안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아동보호구역이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 도시공원 등 시설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구역으로, 남원시는 34개소를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 안내표지판과 CCTV를 설치해 실시간 관제하고 있다.

또한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 아동안

전지킴이, 지역 지구대 및 자율방범대 등의 협조로 순찰을 강화하여 아동범죄 예방 및 아동의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다.

민선식 남원시 부시장은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구역의 지속적인 확대 및 운영에 힘써, 남원시를 아동범죄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는 제95회 춘향제에서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아동보호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아동보호구역의 효과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 시행

남원시는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득 계층 간의 주거환경 간극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거주하는 노후·불량주택으로, 올해에는 총 1억8,000만원으로 36가구 지원할 예정이며, 가구당 500만원 범위에서 지붕·벽체의 구조보

강, 보일러 수리, 도배·장판, 전기·가스시설 설치 등 에너지 효율화와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대상자는 선정하였고 3월 초 공고를 통해 선정된 민간위탁 기관과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추가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남원시 홍성봉 건축과장은 “주거환경 지원을 통해 사회적 주거 약자인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